

LG화학, 열분해유·에어로젤 미래 소재에 3100억 투자

2024년까지 당진에 공장 건설
150여명 직접 고용창출 기대
'친환경사업 메카' 육성 계획

LG화학이 석유화학 분야 차세대 소재 육성을 위한 공장 건설을 가속화한다.

LG화학은 2024년까지 약 3100억원을 투자해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내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열분해유 공장을 조속히 착공하는 한편, 차세대 단열재로 알려진 에어로젤(Aerogel) 공장을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공장 모두 내년 1분기 착공해 2024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한다.

LG화학은 올해 초 국내 최초의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 건설을 발표하고 지난 6월 석문국가산업단지내 입주 인허가 승인을 완료했다. 초임계란 온도와 압력이 물의 임계점을 넘어선 수증기 상태에서 생성되는 특수 열원으로 액체



(왼쪽부터)오성환 당진시장,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16일 충남도청에서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LG화학

의 용해성과 기체의 확산성을 모두 가지게 돼 특정 물질을 추출하는데 유용하다.

에어로젤은 고성능 단열재로 95% 이상이 기체로 구성돼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로 불린다. LG화학은 "에어로젤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특성으로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폐플라스틱에서 추출 가능한 열분해유 기준 2020년 70만톤 규모에서 2030년 330만톤 규모로 연평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에어로젤은 친환경 에너지(액화수소) 수송·보관 및 배

터리 열폭주를 차단 등 산업용 단열재 수요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LG화학은 열분해유, 에어로젤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충남 당진 사업장을 친환경 및 미래 유망소재 사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LG화학은 계획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당진시와 투자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은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내 24만㎡(7만 2000평) 규모의 부지를 이번 신규 공장 설립 및 관련된 소재·공정 분야 투자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LG화학의 미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약 150여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충남도 및 당진시와 굳건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안전관리 인력 2배 이상 배치 '무사고' 총력

오늘 '지스타 2022' 개막

관람객 20만명 이상 참석 예상
부산시·업계 등 안전계획 강화
벡스코 앞 6차선 도로 '차량 통제'

지스타 2022 행사장에 약 20만 명 이상 웃도는 관람객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이번 지스타2022는 안전을 최고 과제로 삼았다. 업계뿐만 아니라 부산시, 해운대구청, 해운대 소방서 등은 안전 관리계획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청은 지난 8일 긴급관계기간 안전 점검 회의를 열고 사고 사전 대비 시스템과 동향을 체크했다.

부산시와 지스타 사무국은 주요 교통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교통 안내 전광판, TV 방송, 시흥보매체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통제구간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사무국 내 민원 안내 전용회선을 개설, 운영한다. 특히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행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전보다 2배 이상 배치해 '무사고 지스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입장권 교환처(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와 입장 대기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구역별 입장 인원을 제한하여 인파 밀집을 방지할 예정이다.

특히, 벡스코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관람객이 벡스코 앞 6차선 도로를 건너서 전시장까지 이동해야 함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사기간 중 도로를 통제하기로 했다. 통제 기간은 지스타 기간인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

며, 센텀역 교차로에서 벡스코 정문 입구까지 6차선 도로를 양방향으로 전면 통제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입장권 사전 구매자는 오전 10시부터, 단체 관람자는 오전 11시부터, 현장 구매자는 낮 12시부터 입장하는 방식으로 관람 인원을 분산시킬 계획"이며 "축제가 아닌 전시회인 만큼 행사 성격에 맞는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고 무엇보다 안전 관리를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스타2022 메인 스폰인 위메이드가 계획했던 불꽃놀이, 드론 등 외부 행사들도 취소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지스타2022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전이다. 이에 안전 관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며 "실내에서 하는 코스프레 행사 등은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사나 퍼포먼스는 간소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하는 행사도 간소화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게임업계도 이에 맞는 안전 도움인력을 늘려 부스 곳곳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현대글로벌비스, 말레이 물류시장 진출 속도

현지 대표기업 라이온 그룹과 MOU

현대글로벌비스가 동남아시아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물류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글로벌비스는 말레이시아 대표 기업 라이온 그룹과 '글로벌 사업 및 스마트 물류 솔루션 분야 협업'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현지 대기업과 전략적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아세안 공략 보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라이온 그룹은 주력 분야인 철강을 비롯해 유통, 부동산 개발, 농업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종합 대기업이다.

지난해 연매출은 30억달러(4조원) 수준으로 중국, 미국 등 10여개국에 진출

해 있으며, 아시아 6개국에서 82개점을 운영 중인 팍스 백화점의 모(母)그룹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협약에 따라 내년 초 물류 컨설팅을 시작해 라이온 그룹의 철강 물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을 계획이다.

통합 운송관리 시스템 등 신규 전산 운영체제를 구현해 물류비용 절감을 돕는 등 효율성을 높여 물류 고도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사샤 아즈키지안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올해 출시한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신형 제타·골프 GTI 공개

'2022 폭스바겐 아틀리에' 개최

폭스바겐이 신형 제타와 골프GTI로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 전략 첫 단계를 완성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15일과 16일 서울 성수동 마크69에서 '2022 폭스바겐 아틀리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분 변경 신형 제타 고객 인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형 골프GTI'를 먼저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형 제타는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 전략 핵심 모델이다. 3000만원대 가격에 공인연비 14.1km/L의 1.5L TSI 가솔린 터보 엔진과 5년에 15만km 보증 확대 등으로 유지 비용을 독일 컴팩트 세단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앞좌석 통풍 및 히팅 시트와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함께 전자 보조시스템인 IQ.드라이브까지 탑재해 성능과 편의성도 충족한다.

다음달 출시 예정인 신형 골프GTI는 올해 폭스바겐 신차 라인업에 대미를 장식한다. '핫해치'를 새로 개척한 모델로 8세대까지 전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고성능 모델이다. E A888evo42.0TSI 고성능 터보차저 직

분사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출력이 245마력, 그 밖에 다양한 기술력을 적용해 숫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이내믹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샤 아즈키지안 사장은 자신했다.

특히 이날 사샤 아즈키지안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폭스바겐코리아가 이뤄낸 성과를 다시 한번 소개하며 '접근 가능한 프리미엄'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비롯해 아테온과 ID.4 등 인기 모델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모처럼 라인업을 재정비했다. 해치백 볼보지로는 불리는 국내 시장에서 8세대 골프로 다시 한번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급난 여파로 판매량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티구안의 꾸준한 인기로 이어 ID.4를 베스트셀링카에 올리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사샤 아즈키지안 사장은 앞으로도 '차근차근' 라인업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꾸준히 소비자들에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전동화 모델은 물론, 다양한 소비자를 위해 친환경성을 크게 개선한 가솔린과 디젤 라인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juk@